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2010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축제의 현장



“2010 대한민국 음악대향연(Korea Music Festival, 이하 음악대향연)”이 지난 8월 11일(화)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음악대향연은 강원도 속초시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축제로서 올해는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음악 세상 속조’를 주제로 화려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Korea Music Festival



개막일(11일)은 음악대향연의 서막을 알리는 행사로 김종환, 김혜연, 노브레인, 다비치, 인순이, 전영록 등이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꾸몄다. 둘째 날은 유명 음악 프로그램인 MBC '쇼! 음악 중심 in 속초'가 마련됐다. 국내 정상급의 가수들이 총출동한 이날 공연에는 BOA, 2PM, 세븐, 태양, 샤이니, 손담비, 애프터스쿨, 장윤정, 엠블랙, 미쓰에이, 바비킴, 노라조 등이 출연했다. 13일은 성인 가요 페스티벌로 남진, 한혜진, 송대관, 김양, 박상철, 박현빈, 최진희, 원크, 조항조, 김연자 등이 출연해 어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폐막일(14일)은 '빅스타 콘서트'로 이은미의 단독 콘서트가 진행됐다.

특히, 둘째 날의 MBC '쇼! 음악중심' 여름 특집에서는 무려 20개 팀, 70여명의 국내 유명가수가 총출동하여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이날 무대에 오른 가수들은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편, 스페셜 MC로 2PM의 닉쿤과 미쓰에이 수지가 MC로 가세해, 지난 7일 '쇼! 음악중심'에 참여했던 샤이니 온유, f(x) 크리스탈과 함께 진행을 맡았다.



음악대향연은 특설무대 말고도 보조무대를 설치하여 공연 관람을 기다리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다. 림보 게임, 퀴즈, 아마추어 가수 노래 등 오랜 기다림에 시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보조무대 옆으로 작게나마 음료 시음회와 사진 전시회가 이뤄졌고, 특산물 판매장터도 자리 잡아 축제에 흥을 더했다. 규모가 작아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앞으로 연계행사가 다양하게 기획돼서 2시간의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비가 내리는데도 무한히 기다리고 있던 관람객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해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공연장 안으로 하나둘씩 입장을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마음에 기분이 들떠있다. 응원도구까지 준비한 팬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Korea Music Festival

아이들은 공연장으로 입장하자 손놀림이 바빠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힘내서 멋진 공연하라고 색깔 풍선을 준비하고, 응원카드는 비가 맞을까봐 우비로 감싸는 모습이 팬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빗줄기는 굵어지고, 공연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이 잠시 지연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운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공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함성소리가 내리던 비를 금방이라도 멈추게 할 기세다. 손에 든 풍선을 정신없이 흔들며, 가수들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내 기분마저도 좋게 한다. 힘 있고 에너지 넘쳐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음악대향연의 밝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었다.

즐기는 관람객들 사이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우비를 입고,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조명탑에 올라 무대를 비추고, 화려한 볼거리로 무대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 공연은 비가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더욱 고생했다. 방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영상에 담기지 않지만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훌륭한 방송이 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묵묵히 일해 나가는 그들의 프로다운 열정적인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속초시에 의하면 지난해 음악대향연에 참여한 인원이 총 8만5000여명. 올해도 9만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악대향연의 높은 관심은 작은 해프닝도 만들었는데, 개막일(11일)에 음악대향연 홈페이지에 누리꾼들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일일 트랙픽 사용량’이 초과돼 오후 내내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듯, 음악대향연이 속초시를 벗어나 국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공연들도 더욱 알차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운영으로 꾸준한 사랑받으며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